

2022년 정치 · 사회 여론조사(4차) 결과 보고서

2022. 05. 05.

1장. 조사의 개요

I. 조사의 목적	4
II. 조사 설계	5
III. 조사 내용	6
IV. 표본의 특성	7

2장. 조사 결과 분석

I. 대통령 국정운영 및 정당지지도 관련	9
1.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9
2. 차기 정부 국정운영 기대감	11
3. 정당 지지도	12
II. 정치현안 관련	13
1.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대한 평가	13
2. 내각 후보 지명 평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14
3. 내각 후보 지명 평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15
4. 내각 후보 지명 평가: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16
5. 가장 우선 추진되어야 할 국정과제	17
6. 검찰 수사권 축소에 대한 찬반	19
7.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논란에 대한 책임	20
8. 검찰 집단 의견 표명에 대한 공감여부	22
9. 윤석열 당선인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찬반	23
10. 지방선거 인식	24

1장. 조사의 개요

I 조사의 목적

II 조사 설계

III 조사 내용

IV 표본의 특성

I. 조사의 목적

본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주요 정치·사회현안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여 MBC 보도용 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본 조사의 목적 및 기대효과를 흐름도(Flow-Chart)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II. 조사 설계

MBC 2022년 정치·사회 여론조사(4차) (2022. 05. 05.)

조사 의뢰자

- MBC

조사 기관

-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 지역

- 전국

조사 기간

- 2022년 05월 04일 ~ 05월 05일(2일간)

조사 대상

-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 방법

-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표본 크기

- 1,003명(가중값 적용 사례수: 1,003명)

피조사자 선정방법

- 성/연령/지역별로 피조사자를 할당

응답률

- 14.6%(총 6,865명과 통화하여 그 중 1,003명이 응답 완료)

가중치값 산출 및 적용방법

-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
(2022년 0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pm 3.1\%$ point

Ⅲ. 조사 내용

대통령 국정운영 및 정당지지도 관련

-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차기 정부 국정운영 기대감
- 정당 지지도

정치현안 관련

- 대통령 직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대한 평가
- 내각 후보 지명 평가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 내각 후보 지명 평가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 내각 후보 지명 평가 :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 가장 우선 추진되어야 할 국정과제
- 검찰 수사권 축소에 대한 찬반
-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논란에 대한 책임
- 검찰 집단 의견 표명에 대한 공감여부
- 윤석열 당선인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찬반
- 지방선거 인식

IV. 표본의 특성

구 분		실제 조사 사례수	%	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수	%
전체		(1,003)	100.0	(1,003)	100.0
성별	남성	(498)	49.7	(496)	49.5
	여성	(505)	50.3	(507)	50.5
연령별	18세-29세	(163)	16.3	(170)	16.9
	30대	(139)	13.9	(150)	15.0
	40대	(186)	18.5	(186)	18.5
	50대	(200)	19.9	(195)	19.4
	60세	(176)	17.5	(166)	16.6
	70세 이상	(139)	13.9	(136)	13.6
지역별	서울	(197)	19.6	(189)	18.8
	인천/경기	(321)	32.0	(318)	31.7
	대전/충청(세종)	(100)	10.0	(108)	10.8
	광주/전라	(96)	9.6	(99)	9.9
	대구/경북	(94)	9.4	(97)	9.7
	부산/울산/경남	(154)	15.4	(151)	15.1
	강원/제주	(41)	4.1	(41)	4.1

2장. 조사 결과 분석

I 대통령 국정운영 및
정당지지도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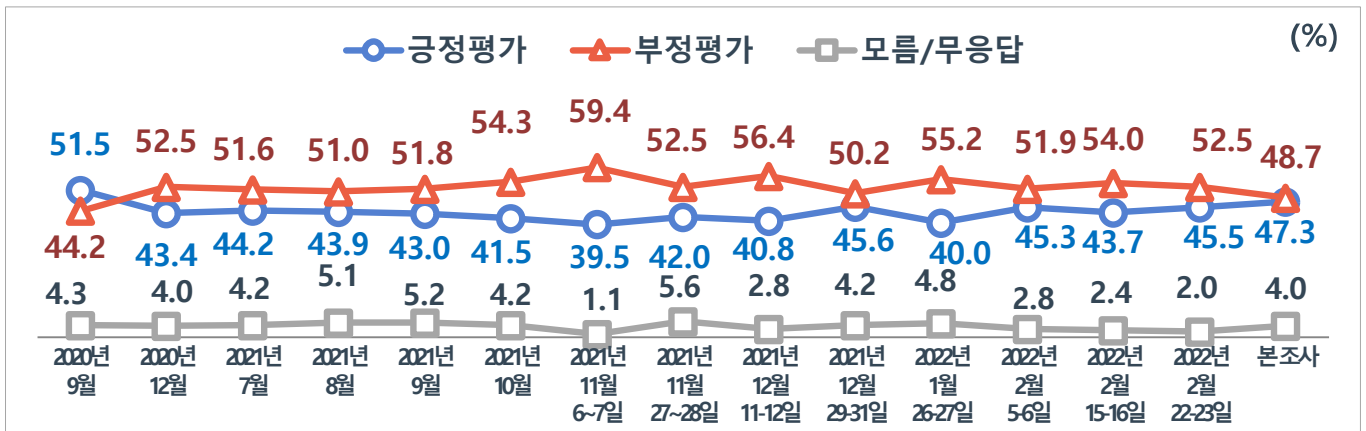
II 정치현안 관련

I. 대통령 국정운영 및 정당지지도 관련

1.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지금까지 '잘했다'(매우 16.5%+잘했었던 편 30.8%)는 긍정적 평가가 47.3%, '잘못했다'(매우 27.2%+잘못했었던 편 21.5%)는 부정적 평가가 48.7%로 나타남.
- ☞ 본 조사에서는 이전과 다르게 지금까지의 국정운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질문을 사용하여 단순 추이비교는 어려우나, 큰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은 결과로 보임.

- ✓ '잘했다'는 긍정적 평가는 40대(64.9%), 광주/전라 거주자(78.1%), 화이트칼라(55.8%), 진보 성향층(76.1%)에서 높음.
- ✓ '잘못했다'는 부정적 평가는 60대 이상(60대 67.2%, 70세 이상 59.6%), 서울(55.5%) 및 대구/경북(57.2%) 거주자, 보수 성향층(78.0%)에서 높음.



I. 대통령 국정운영 및 정당지지도 관련

1.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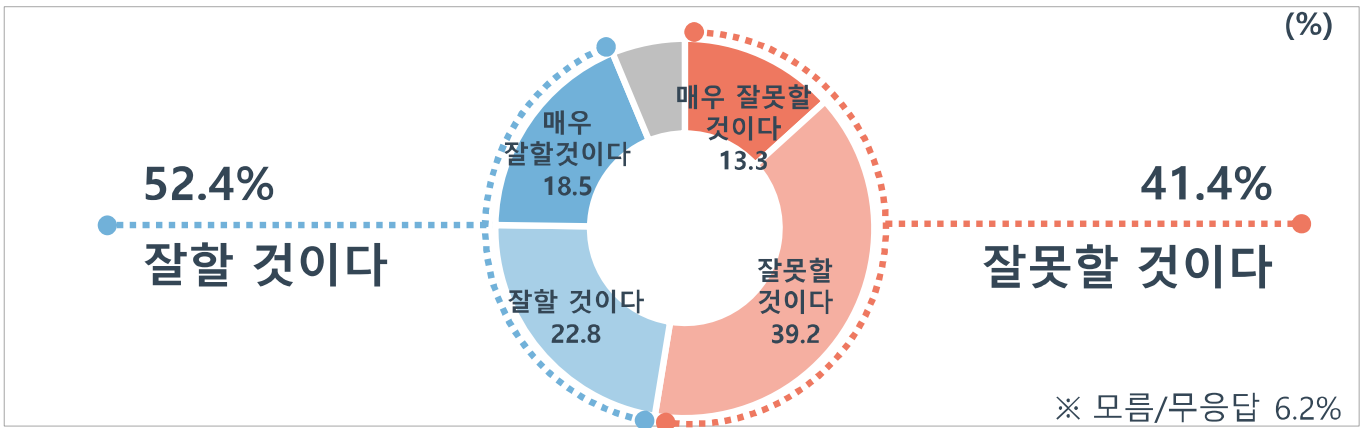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매우 잘했다	잘했던 편 이다	잘못했던 편이다	매우 잘못 했다	종합평가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모름/ 무응답	
전체	(1,003)	16.5	30.8	21.5	27.2	47.3	48.7	4.0	
연령	18세-29세	(170)	5.9	40.6	33.0	12.0	46.5	45.0	8.5
	30대	(150)	22.6	28.5	26.4	19.2	51.1	45.6	3.3
	40대	(186)	28.9	35.9	14.6	17.9	64.9	32.5	2.7
	50대	(195)	19.7	32.5	15.9	30.4	52.2	46.3	1.5
	60대	(166)	9.9	20.6	17.9	49.3	30.5	67.2	2.2
	70세 이상	(136)	9.8	24.1	23.3	36.3	33.9	59.6	6.5
지역	서울	(189)	17.5	23.9	22.1	33.4	41.4	55.5	3.0
	인천/경기	(318)	15.5	33.6	23.1	24.5	49.1	47.6	3.3
	대전/충청(세종)	(108)	17.7	28.2	25.3	24.2	45.9	49.5	4.6
	광주/전라	(99)	27.9	50.2	13.8	7.1	78.1	20.9	1.0
	대구/경북	(97)	8.1	28.5	18.9	38.3	36.6	57.2	6.2
	부산/울산/경남	(151)	16.2	26.3	18.7	31.1	42.5	49.9	7.7
	강원/제주	(41)	11.0	23.2	30.1	35.8	34.1	65.9	0.0
직업	농/임/어/축산	(28)	3.6	27.3	19.0	46.6	30.9	65.6	3.6
	자영업	(188)	19.9	25.9	22.4	30.9	45.8	53.3	0.9
	블루칼라	(163)	16.6	32.8	20.4	26.0	49.4	46.4	4.3
	화이트칼라	(261)	23.1	32.7	18.8	22.7	55.8	41.5	2.7
	주부	(175)	13.3	28.7	20.7	32.3	42.0	53.0	5.0
	학생	(85)	8.1	33.9	31.0	16.2	42.0	47.2	10.8
	무직/기타	(102)	9.6	33.9	22.5	29.0	43.4	51.6	5.0
이념성향	보수	(290)	7.0	11.9	27.3	50.7	18.9	78.0	3.1
	중도	(387)	15.9	35.5	24.0	21.5	51.4	45.5	3.1
	진보	(243)	31.1	45.0	12.0	9.3	76.1	21.4	2.6
	모름/무응답	(83)	10.2	33.2	17.0	24.2	43.4	41.2	15.3

I. 대통령 국정운영 및 정당지지도 관련

2. 차기 정부 국정운영 기대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정부 국정수행에 대해 **잘할 것(매우 13.3% + 잘할 것 39.2%)**이라는 긍정적 기대는 52.4%, **잘못할 것(매우 18.5% + 잘못할 것 22.8%)**이라는 부정적 기대는 41.4%임.

- ✓ 잘할 것이다라는 긍정적 기대는 60대 이상(60대 66.7%, 70세 이상 70.4%), 대구/경북(66.7%) 및 부산/울산/경남(61.9%) 거주자, 주부(63.7%), 보수 성향층(79.5%)에서 비교적 높음.
- ✓ 잘못할 것이다라는 부정적 기대는 30대(53.6%)와 40대(61.2%), 광주/전라 거주자(61.3%), 화이트칼라(53.3%), 진보 성향층(67.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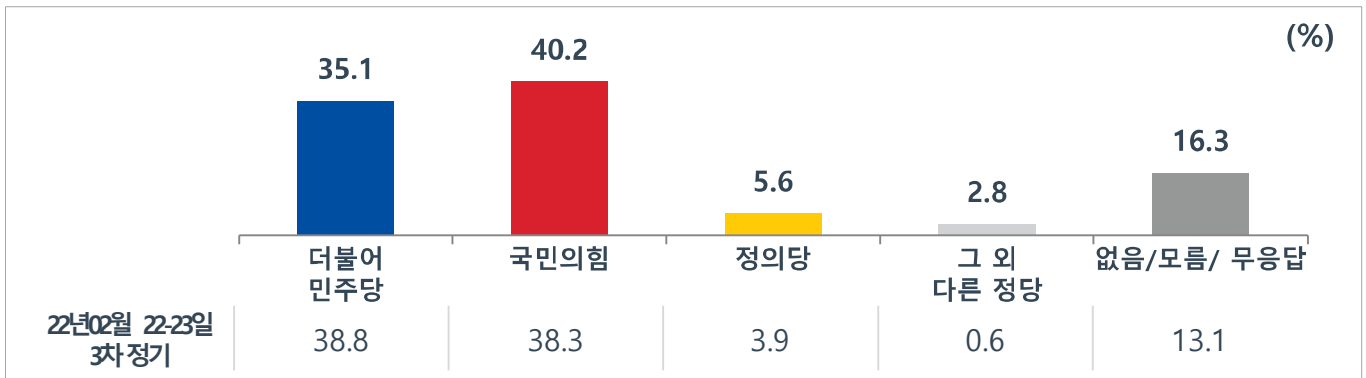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매우 잘할 것이다	잘할 것이다	잘못할 것이다	매우 잘못할 것이다	종합평가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모름/무응답	
전체	(1,003)	13.3	39.2	22.8	18.5	52.4	41.4	6.2	
연령	18세-29세	(170)	3.5	49.3	28.5	14.5	52.8	43.0	4.2
	30대	(150)	7.3	33.8	27.7	25.9	41.1	53.6	5.3
	40대	(186)	8.5	25.6	25.5	35.7	34.1	61.2	4.7
	50대	(195)	15.0	38.7	24.0	16.5	53.6	40.4	6.0
	60대	(166)	22.4	44.3	15.3	10.5	66.7	25.8	7.5
	70세 이상	(136)	25.0	45.4	14.3	4.7	70.4	19.0	10.6
지역	서울	(189)	16.2	37.5	20.9	18.3	53.7	39.2	7.1
	인천/경기	(318)	12.0	39.3	24.3	19.5	51.3	43.8	4.9
	대전/충청(세종)	(108)	12.6	38.7	18.9	24.5	51.3	43.4	5.3
	광주/전라	(99)	2.0	24.9	34.8	26.4	26.9	61.3	11.8
	대구/경북	(97)	20.4	46.2	19.9	8.2	66.7	28.2	5.2
	부산/울산/경남	(151)	16.6	45.3	16.7	15.6	61.9	32.4	5.8
직업	강원/제주	(41)	9.8	41.9	31.3	12.2	51.6	43.5	4.9
	농/임/어/축산	(28)	20.3	43.1	23.1	3.6	63.4	26.7	9.9
	자영업	(188)	14.8	34.4	24.1	24.2	49.2	48.2	2.6
	블루칼라	(163)	10.0	42.9	23.8	16.9	52.9	40.7	6.4
	화이트칼라	(261)	9.0	32.8	25.4	27.9	41.8	53.3	4.8
	주부	(175)	23.2	40.5	16.8	9.5	63.7	26.3	10.0
	학생	(85)	7.1	49.8	26.1	13.4	57.0	39.5	3.5
이념성향	무직/기타	(102)	12.9	45.5	19.9	10.9	58.5	30.8	10.8
	보수	(290)	24.4	55.0	9.5	7.3	79.5	16.8	3.7
	중도	(387)	8.6	39.3	28.8	17.4	47.9	46.2	5.9
	진보	(243)	8.6	20.2	31.5	35.9	28.8	67.5	3.7
모름/무응답	(83)	10.1	38.5	16.4	11.8	48.6	28.2	23.2	

I. 대통령 국정운영 및 정당지지도 관련

3. 정당지지도

- 정당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35.1%, '국민의힘' 40.2%, '정의당' 5.6%로 나타남 ('태도유보(없다+모름/무응답)' 16.3%).

- '더불어민주당'은 40대(52.5%), 광주/전라 거주자(63.1%), 진보 성향층(64.9%)에서 비교적 높음.
- '국민의힘'은 60대(55.6%)와 70세 이상(57.7%), 서울(46.4%), 대구/경북(57.2%) 및 부산/울산/경남(50.4%) 거주자, 주부(53.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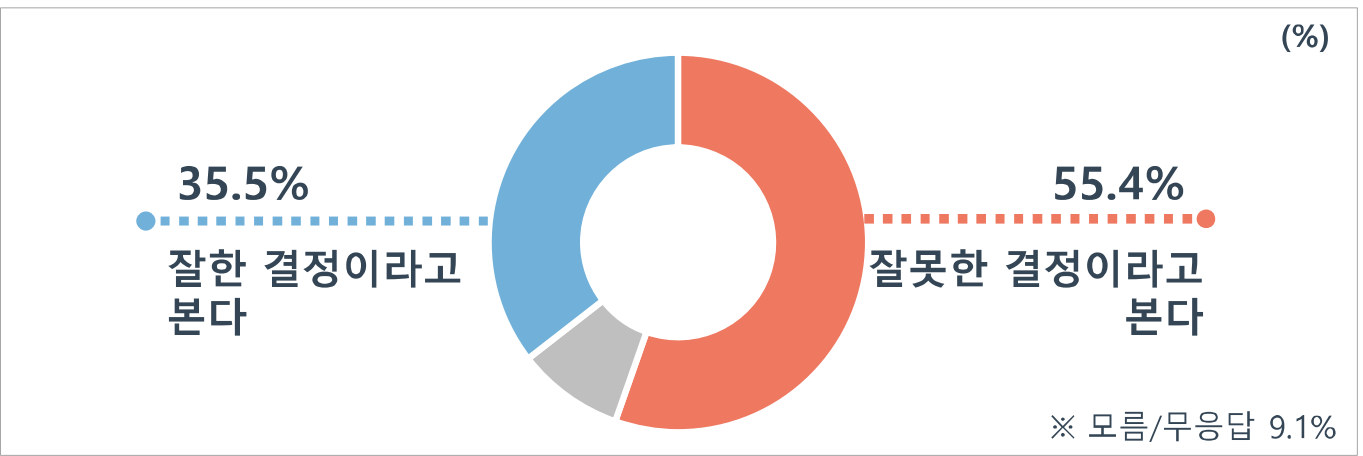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그 외 다른 정당	없다/모름/무응답	
전체	(1,003)	35.1	40.2	5.6	2.8	16.3	
연령	18세-29세	(170)	29.0	30.4	8.3	3.7	28.6
	30대	(150)	37.7	32.4	4.7	2.0	23.2
	40대	(186)	52.5	25.6	2.2	2.1	17.6
	50대	(195)	34.0	43.2	9.6	0.9	12.3
	60대	(166)	26.0	55.6	4.6	4.6	9.2
	70세 이상	(136)	28.7	57.7	3.6	4.3	5.7
지역	서울	(189)	31.9	46.4	5.1	3.6	13.0
	인천/경기	(318)	34.8	36.8	8.3	2.2	17.9
	대전/충청(세종)	(108)	35.6	38.9	7.1	3.7	14.6
	광주/전라	(99)	63.1	8.1	6.1	4.0	18.7
	대구/경북	(97)	20.1	57.2	3.1	2.1	17.5
	부산/울산/경남	(151)	30.2	50.4	1.2	3.2	14.9
강원/제주	(41)	36.6	39.8	4.9	0.0	18.7	
직업	농/임/어/축산	(28)	22.6	52.8	7.1	7.1	10.4
	자영업	(188)	39.6	39.7	7.3	2.5	11.0
	블루칼라	(163)	39.3	39.8	6.1	2.3	12.5
	화이트칼라	(261)	40.1	31.2	6.0	2.8	19.9
	주부	(175)	29.0	53.7	3.5	2.8	11.1
	학생	(85)	25.9	35.3	4.7	3.6	30.5
무직/기타	(102)	29.1	41.9	4.9	2.9	21.2	
이념성향	보수	(290)	12.5	70.1	3.1	5.0	9.3
	중도	(387)	34.1	35.2	6.9	1.3	22.3
	진보	(243)	64.9	15.6	8.1	3.3	8.2
	모름/무응답	(83)	31.3	30.6	1.2	1.2	35.8

II. 정치현안 관련

1.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대한 평가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잘못한 결정이라고 본다'가 55.4%로, '잘한 결정이라고 본다' 35.5%보다 높음.

- ✓ '잘못한 결정이라고 본다'는 30대(65.8%)와 40대(74.3%), 광주/전라 거주자(80.6%), 화이트칼라(63.2%), 진보 성향층(78.8%)에서 높음.
- ✓ '잘한 결정이라고 본다'는 60대(55.2%)와 70세 이상(49.1%), 대구/경북(44.7%) 및 부산/울산/경남(46.8%) 거주자, 주부(43.7%), 보수 성향층(62.3%)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구분	사례수	잘한 결정이라고 본다	잘못한 결정이라고 본다	모름/무응답
전체	(1,003)	35.5	55.4	9.1
연령	18세-29세	(170) 28.3	57.3	14.3
	30대	(150) 24.2	65.8	10.0
	40대	(186) 18.4	74.3	7.4
	50대	(195) 40.4	56.0	3.6
	60대	(166) 55.2	36.2	8.6
	70세 이상	(136) 49.1	38.2	12.7
지역	서울	(189) 36.8	55.0	8.2
	인천/경기	(318) 34.9	58.9	6.3
	대전/충청(세종)	(108) 33.0	55.2	11.9
	광주/전라	(99) 11.1	80.6	8.2
	대구/경북	(97) 44.7	40.9	14.4
	부산/울산/경남	(151) 46.8	42.4	10.7
직업	강원/제주	(41) 35.8	52.0	12.2
	농/임/어/축산	(28) 49.9	33.8	16.3
	자영업	(188) 36.7	58.6	4.7
	블루칼라	(163) 33.3	59.3	7.3
	화이트칼라	(261) 28.4	63.2	8.4
	주부	(175) 43.7	44.8	11.5
이념성향	학생	(85) 35.6	52.7	11.7
	무직/기타	(102) 36.7	49.5	13.8
	보수	(290) 62.3	29.2	8.5
	중도	(387) 30.2	62.1	7.7
이념성향	진보	(243) 15.0	78.8	6.1
	모름/무응답	(83) 26.4	46.8	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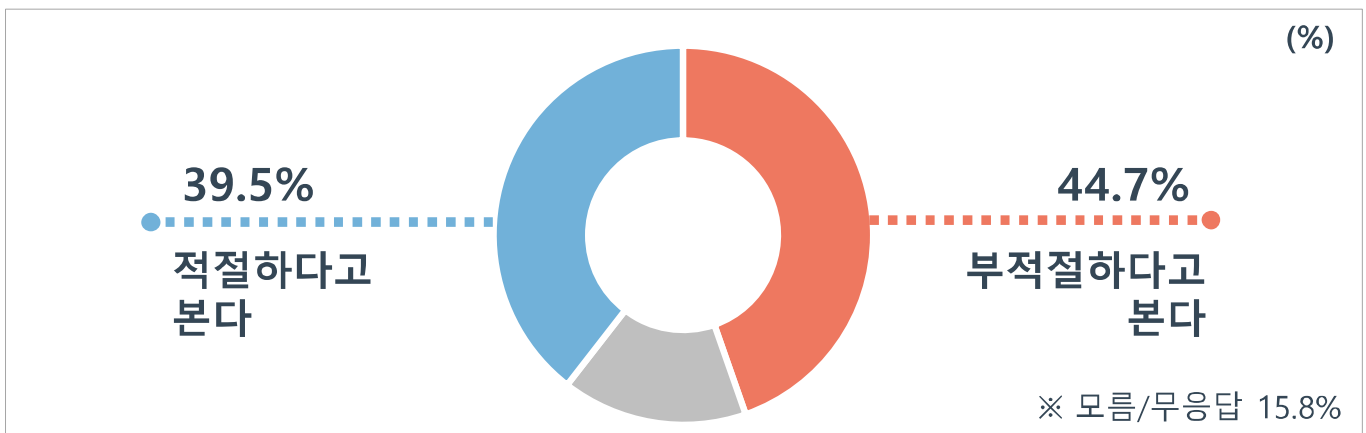
II. 정치현안 관련

2. 내각 후보 지명 평가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 초대 내각 구성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본다' 44.7%, '적절하다고 본다' 39.5%로 나타남.

✓ '부적절하다고 본다'는 30대(53.3%)와 40대(57.8%), 광주/전라 거주자(63.5%), 화이트칼라(52.6%), 진보 성향층(65.4%)에서 높음.

✓ '적절하다고 본다'는 60대(53.6%)와 70세 이상(49.4%), 대구/경북(49.7%) 및 부산/울산/경남(47.7%) 거주자, 주부(45.6%), 보수 성향층(61.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구분	사례수	적절하다고 본다	부적절하다고 본다	모름/무응답	
전체	(1,003)	39.5	44.7	15.8	
연령	18세-29세	(170)	35.7	35.0	29.2
	30대	(150)	30.2	53.3	16.6
	40대	(186)	30.0	57.8	12.2
	50대	(195)	40.2	49.0	10.8
	60대	(166)	53.6	36.6	9.9
	70세 이상	(136)	49.4	32.8	17.8
지역	서울	(189)	43.9	42.9	13.1
	인천/경기	(318)	36.6	47.3	16.0
	대전/충청(세종)	(108)	41.5	44.6	13.9
	광주/전라	(99)	19.2	63.5	17.3
	대구/경북	(97)	49.7	33.0	17.4
	부산/울산/경남	(151)	47.7	37.3	15.0
직업	강원/제주	(41)	30.9	41.5	27.6
	농/임/어/축산	(28)	49.6	41.5	8.9
	자영업	(188)	42.1	46.2	11.7
	블루칼라	(163)	37.6	49.4	13.0
	화이트칼라	(261)	34.4	52.6	13.0
	주부	(175)	45.6	35.4	19.0
이념성향	학생	(85)	39.2	34.1	26.7
	무직/기타	(102)	37.8	39.5	22.7
	보수	(290)	61.1	28.5	10.4
	중도	(387)	35.9	47.6	16.5
이념성향	진보	(243)	24.0	65.4	10.6
	모름/무응답	(83)	26.4	26.6	4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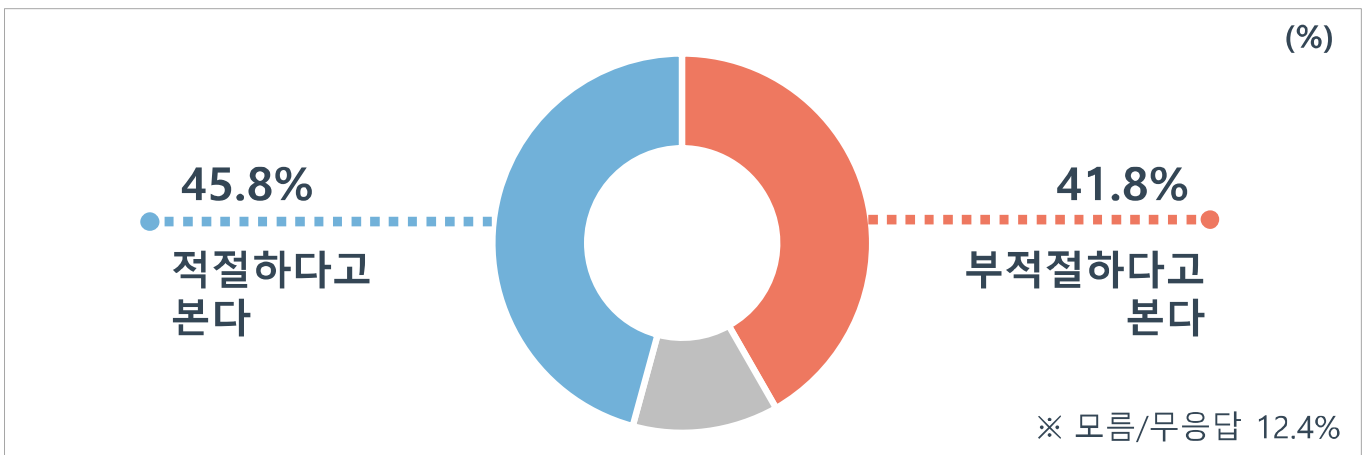
II. 정치현안 관련

3. 내각 후보 지명 평가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적절하다고 본다' 45.8%, '부적절하다고 본다' 41.8%로 나타남.

✓'적절하다고 본다'는 60대(61.9%)와 70세 이상(63.5%), 대구/경북(56.7%) 및 부산/울산/경남(55.0%) 거주자, 주부(56.9%), 보수 성향층(73.6%)에서 높음.

✓'부적절하다고 본다'는 30대(54.0%)와 40대(58.4%), 광주/전라 거주자(67.0%), 화이트칼라(51.3%), 진보 성향층(66.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구분	사례수	적절하다고 본다	부적절하다고 본다	모름/무응답
전체	(1,003)	45.8	41.8	12.4
연령	18세-29세	(170) 39.1	31.4	29.5
	30대	(150) 32.7	54.0	13.3
	40대	(186) 33.6	58.4	8.0
	50대	(195) 47.3	44.6	8.2
	60대	(166) 61.9	32.9	5.2
	70세 이상	(136) 63.5	25.4	11.1
지역	서울	(189) 49.3	38.7	12.0
	인천/경기	(318) 43.2	45.2	11.6
	대전/충청(세종)	(108) 49.2	41.5	9.3
	광주/전라	(99) 16.2	67.0	16.8
	대구/경북	(97) 56.7	27.8	15.5
	부산/울산/경남	(151) 55.0	35.1	9.9
직업	강원/제주	(41) 52.8	26.8	20.3
	농/임/어/축산	(28) 56.4	34.1	9.5
	자영업	(188) 45.2	45.7	9.1
	블루칼라	(163) 43.5	46.7	9.9
	화이트칼라	(261) 39.0	51.3	9.6
	주부	(175) 56.9	30.3	12.8
	학생	(85) 37.0	33.6	29.5
이념성향	무직/기타	(102) 53.2	31.0	15.7
	보수	(290) 73.6	18.4	8.1
	중도	(387) 41.1	47.1	11.8
	진보	(243) 25.2	66.0	8.9
	모름/무응답	(83) 31.0	28.1	4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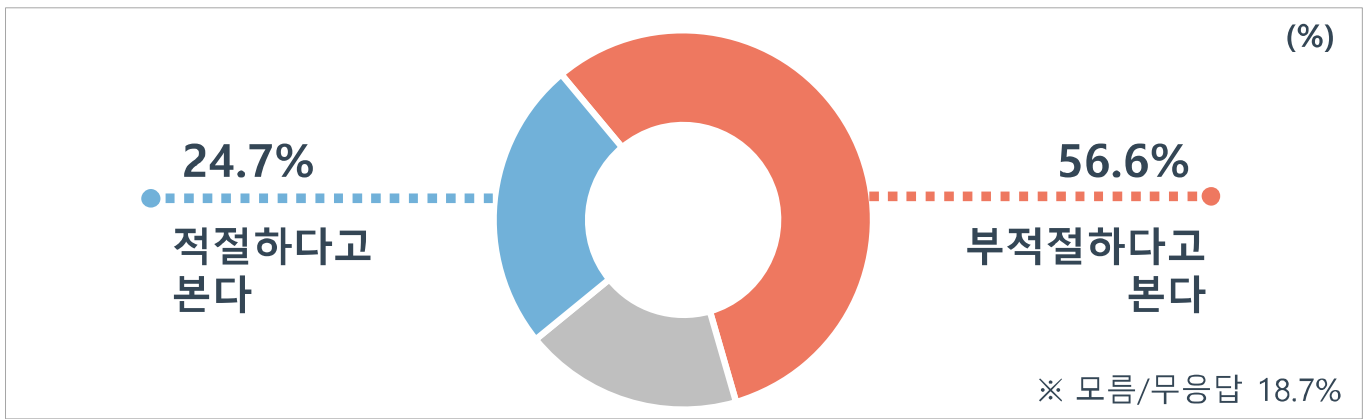
II. 정치현안 관련

4. 내각 후보 지명 평가 :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정호영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본다' 56.6%로, '적절하다고 본다' 24.7%보다 높음.

✓ '부적절하다고 본다'는 40대(74.0%)와 50대(66.3%), 자영업자(64.2%), 블루칼라(63.1%), 화이트칼라(64.0%), 진보 성향층(66.0%)에서 특히 높음.

✓ '적절하다고 본다'는 18~29세(35.0%), 대구/경북 거주자(38.8%), 학생(34.8%), 보수 성향층(31.4%)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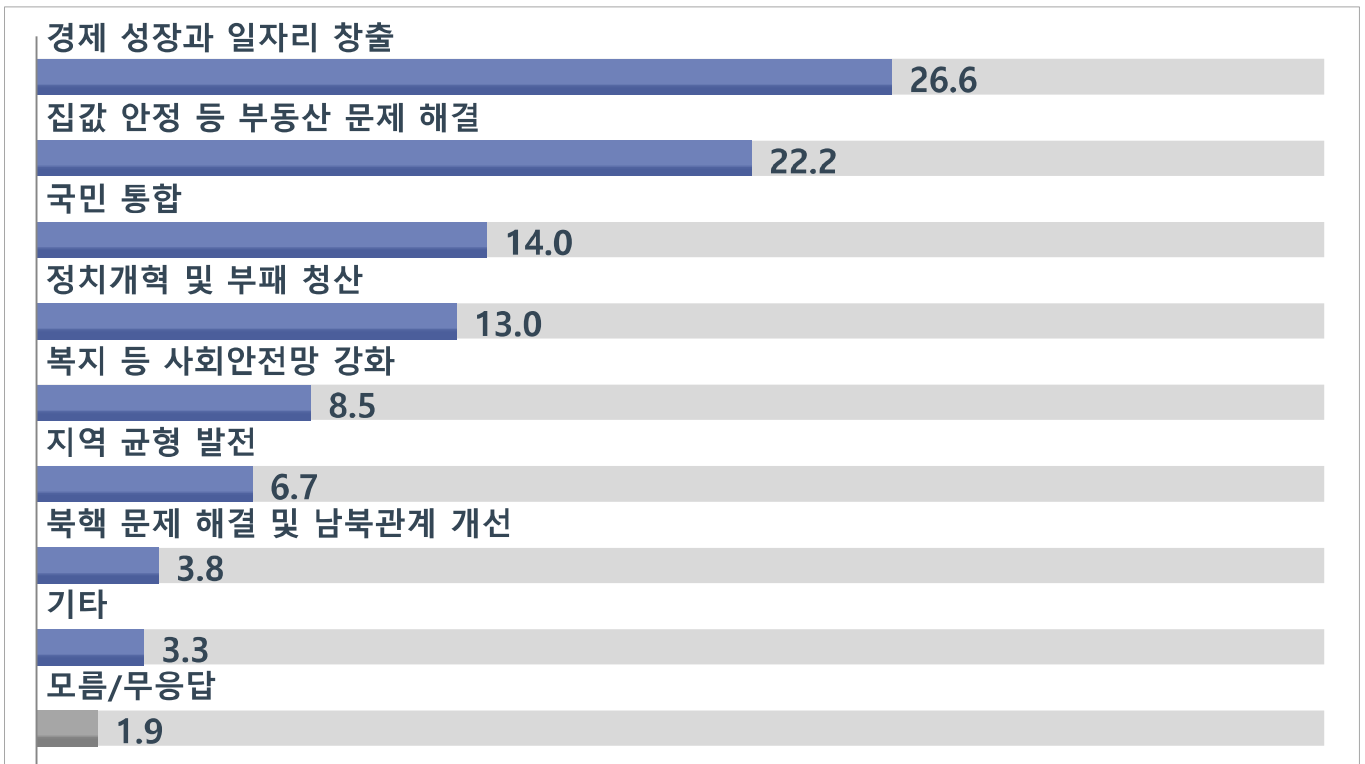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적절하다고 본다	부적절하다고 본다	모름/무응답
전체	(1,003)	24.7	56.6	18.7
연령	18세-29세	(170) 35.0	31.2	33.8
	30대	(150) 29.5	52.0	18.6
	40대	(186) 15.6	74.0	10.4
	50대	(195) 20.0	66.3	13.7
	60대	(166) 24.3	62.5	13.3
	70세 이상	(136) 26.5	48.8	24.7
지역	서울	(189) 25.4	54.2	20.5
	인천/경기	(318) 23.7	59.8	16.5
	대전/충청(세종)	(108) 19.1	58.9	22.0
	광주/전라	(99) 15.2	62.0	22.9
	대구/경북	(97) 38.8	45.7	15.5
	부산/울산/경남	(151) 29.8	55.2	15.0
강원/제주	(41) 15.4	56.1	28.5	
직업	농/임/어/축산	(28) 35.6	51.6	12.7
	자영업	(188) 21.0	64.2	14.7
	블루칼라	(163) 23.0	63.1	13.9
	화이트칼라	(261) 21.6	64.0	14.4
	주부	(175) 29.8	45.9	24.4
	학생	(85) 34.8	32.2	33.1
무직/기타	(102) 22.1	53.8	24.1	
이념성향	보수	(290) 31.4	53.4	15.1
	중도	(387) 23.7	58.8	17.5
	진보	(243) 20.9	66.0	13.0
	모름/무응답	(83) 17.3	30.2	52.5

II. 정치현안 관련

5. 가장 우선 추진되어야 할 국정과제

- 윤석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정현안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26.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집값 안정 등 부동산 문제 해결' 22.2%, '국민통합' 14.0%, '정치개혁 및 부패 청산' 13.0%등의 순으로 나타남.

- ✓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60대(33.5%), 대전/충청(세종) 거주자(33.6%), 주부(31.9%)에서 높음.
- ✓ '집값 안정 등 부동산 문제 해결'은 18~29세(35.4%)와 30대(32.4%), 서울 거주자(29.3%), 학생(31.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II. 정치현안 관련

5. 가장 우선 추진되어야 할 국정과제

구분		사례수	경제 성장 과 일자리 창출	집값 안정 등 부동산 문제 해결	정치개혁 및 부패청산	국민 통합	복지 등 사회 안전망 강화	지역 균형 발전	북핵 문제 해결 및 남북관계 개선	기타	모름/ 무응답
전체		(1,003)	26.6	22.2	14.0	13.0	8.5	6.7	3.8	3.3	1.9
연령	18세-29세	(170)	23.9	35.4	7.3	9.1	7.5	7.8	3.1	3.1	2.9
	30대	(150)	18.8	32.4	14.0	11.7	7.9	8.6	1.3	4.0	1.3
	40대	(186)	28.7	19.6	13.5	11.6	9.6	7.4	3.5	4.6	1.6
	50대	(195)	28.4	16.1	11.5	19.8	9.6	5.6	5.0	3.1	0.9
	60대	(166)	33.5	16.5	20.1	12.3	6.8	3.9	3.3	1.8	1.7
	70세 이상	(136)	24.3	13.9	19.1	12.6	9.5	7.4	6.5	3.5	3.3
지역	서울	(189)	25.2	29.3	10.7	15.0	6.7	2.1	4.5	4.0	2.4
	인천/경기	(318)	27.5	22.6	12.3	16.3	8.2	5.0	2.9	3.5	1.9
	대전/충청(세종)	(108)	33.6	19.0	25.2	6.6	5.6	6.3	1.9	1.9	0.0
	광주/전라	(99)	18.2	21.9	18.9	8.6	11.6	14.1	3.0	3.0	0.7
	대구/경북	(97)	28.0	15.3	13.2	12.4	9.1	11.2	3.8	2.1	5.0
	부산/울산/경남	(151)	27.6	19.3	10.7	13.3	9.5	7.4	7.8	2.5	2.0
	강원/제주	(41)	19.9	22.8	14.6	7.3	14.6	11.0	0.0	9.8	0.0
직업	농/임/어/축산	(28)	34.5	6.6	16.3	3.0	9.6	16.7	6.5	6.8	0.0
	자영업	(188)	24.8	23.0	17.0	12.5	8.8	7.7	2.6	2.1	1.4
	블루칼라	(163)	26.5	21.6	14.2	15.9	7.8	7.5	1.3	3.6	1.6
	화이트칼라	(261)	23.2	25.7	13.5	15.8	7.6	6.1	4.0	3.4	0.8
	주부	(175)	31.9	16.5	16.1	12.1	9.6	3.9	5.5	3.3	1.1
	학생	(85)	20.8	31.7	8.4	9.8	9.0	8.4	2.6	3.5	5.7
	무직/기타	(102)	31.9	18.9	9.8	9.6	8.8	5.7	6.7	4.0	4.8
이념성향	보수	(290)	31.0	19.3	13.9	18.5	5.8	6.1	2.7	2.4	0.3
	중도	(387)	27.4	24.5	14.7	11.7	8.2	6.2	4.2	2.6	0.5
	진보	(243)	22.9	20.4	14.3	10.3	11.9	9.6	5.0	4.4	1.2
	모름/무응답	(83)	17.8	26.7	10.3	8.1	9.5	2.4	2.5	6.8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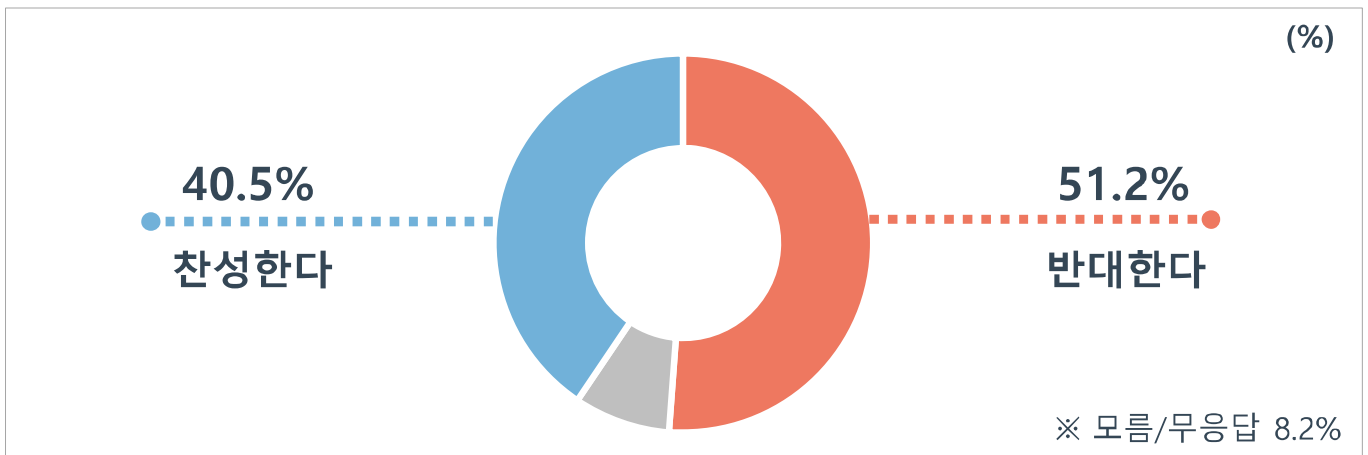
II. 정치현안 관련

6. 검찰 수사권 축소에 대한 찬반

- 검찰의 수사권 축소에 '반대한다'가 51.2%로, '찬성한다' 40.5%보다 높음.

✓ '반대한다'는 60대(66.1%)와 70세 이상(61.7%), 대전/충청(세종)(62.2%) 및 대구/경북(60.3%) 거주자에서 높음.

✓ '찬성한다'는 30대(47.6%)와 40대(57.4%), 광주/전라 거주자(62.3%), 화이트칼라(48.4%)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구분	사례수	찬성한다	반대한다	모름/무응답
전체	(1,003)	40.5	51.2	8.2
연령	18세-29세	(170) 37.7	50.8	11.5
	30대	(150) 47.6	43.7	8.7
	40대	(186) 57.4	39.0	3.6
	50대	(195) 44.4	48.9	6.6
	60대	(166) 27.7	66.1	6.2
	70세 이상	(136) 23.4	61.7	14.8
지역	서울	(189) 38.7	52.6	8.6
	인천/경기	(318) 41.3	53.1	5.6
	대전/충청(세종)	(108) 34.1	62.2	3.7
	광주/전라	(99) 62.3	24.4	13.3
	대구/경북	(97) 28.7	60.3	11.0
	부산/울산/경남	(151) 39.1	50.5	10.4
직업	강원/제주	(41) 40.7	47.2	12.2
	농/임/어/축산	(28) 32.1	49.3	18.7
	자영업	(188) 45.0	51.3	3.7
	블루칼라	(163) 43.3	52.6	4.1
	화이트칼라	(261) 48.4	44.9	6.7
	주부	(175) 32.2	53.9	13.9
	학생	(85) 34.7	52.6	12.7
이념성향	무직/기타	(102) 29.5	59.7	10.8
	보수	(290) 18.5	76.3	5.2
	중도	(387) 46.5	46.9	6.6
	진보	(243) 62.7	33.1	4.2
	모름/무응답	(83) 24.6	36.9	38.4

II. 정치현안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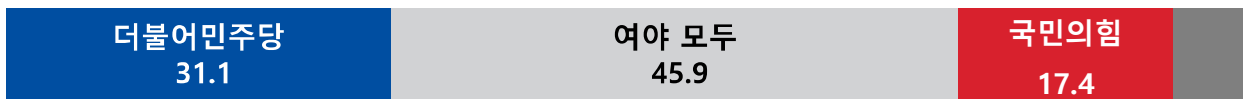
7.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논란에 대한 책임

-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통과에 대한 여야 논란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여야 모두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45.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31.1%, '국회의장이 중재한 합의안을 파기한 국민의힘'의 책임 17.4%의 순임.

- ✓ '여야 모두의 책임'은 18~29세(65.2%)와 30대(60.9%), 광주/전라 거주자(58.2%), 학생(62.7%)에서 높음.
- ✓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응답은 60대(48.9%)와 70세 이상(46.3%), 대구/경북(40.9%) 및 부산/울산/경남(37.6%) 거주자, 주부(41.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국민의힘'은 40대(30.2%), 광주/전라 거주자(27.9%), 화이트칼라(24.2%)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한 더불어민주당 ■ 합의에 이르지 못한 여야 모두의 책임
- 국회의장이 중재한 합의안을 파기한 국민의힘 ■ 모름/무응답



※ 모름/무응답 5.6%

Ⅱ. 정치현안 관련

7.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논란에 대한 책임

구분		사례수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이 중재한 합의안을 파기한 국민의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여야 모두의 책임	모름/무응답
전체		(1,003)	31.1	17.4	45.9	5.6
연령	18세-29세	(170)	17.1	5.3	<u>65.2</u>	12.3
	30대	(150)	21.9	14.6	<u>60.9</u>	2.6
	40대	(186)	21.6	<u>30.2</u>	47.2	1.0
	50대	(195)	33.8	22.4	40.1	3.6
	60대	(166)	<u>48.9</u>	17.4	28.9	4.7
	70세 이상	(136)	<u>46.3</u>	11.1	32.1	10.4
지역	서울	(189)	33.2	13.1	45.6	8.1
	인천/경기	(318)	29.2	17.3	48.1	5.4
	대전/충청(세종)	(108)	34.8	19.6	41.0	4.6
	광주/전라	(99)	10.1	<u>27.9</u>	<u>58.2</u>	3.7
	대구/경북	(97)	<u>40.9</u>	9.3	45.7	4.1
	부산/울산/경남	(151)	<u>37.6</u>	19.1	38.1	5.2
	강원/제주	(41)	30.9	20.7	41.9	6.5
직업	농/임/어/축산	(28)	53.1	17.8	26.7	2.4
	자영업	(188)	31.8	18.9	48.2	1.1
	블루칼라	(163)	28.5	18.1	46.7	6.7
	화이트칼라	(261)	25.5	<u>24.2</u>	48.5	1.9
	주부	(175)	<u>41.0</u>	14.0	35.5	9.5
	학생	(85)	19.0	4.6	<u>62.7</u>	13.8
	무직/기타	(102)	35.5	13.3	42.6	8.5
이념향	보수	(290)	54.2	7.3	35.4	3.1
	중도	(387)	27.7	18.0	50.7	3.6
	진보	(243)	11.9	30.7	53.0	4.4
	모름/무응답	(83)	22.9	11.4	39.0	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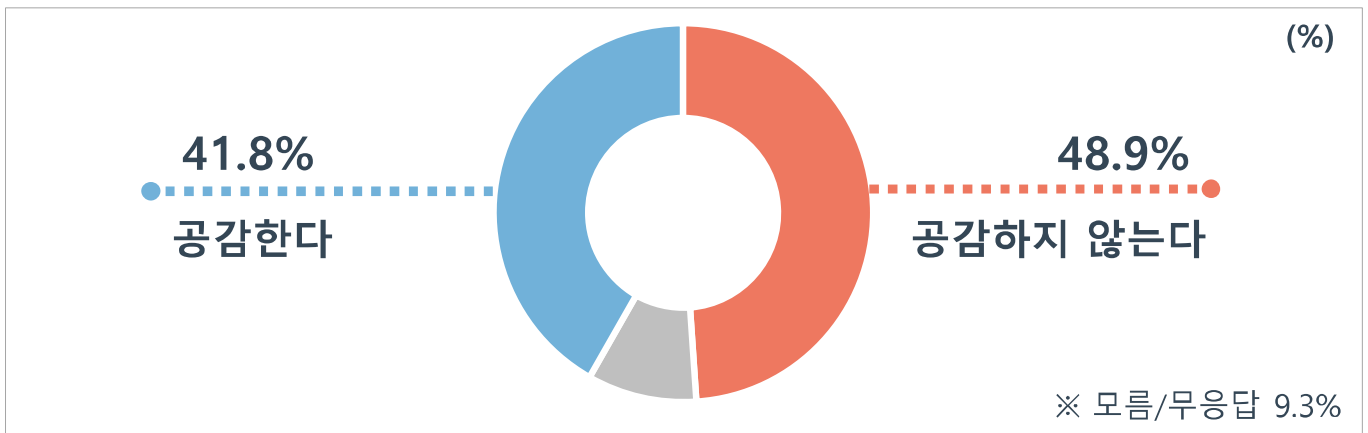
II. 정치현안 관련

8. 검찰 집단 의견 표명에 대한 공감 여부

- 검찰수사권 분리법안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의견 표명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가 48.9%로, '공감한다' 41.8%보다 높음.

✓ '공감하지 않는다'는 30대(58.9%)와 40대(63.8%), 광주/전라 거주자(69.5%), 블루칼라(62.2%)에서 높음.

✓ '공감한다'는 60대(55.4%), 대구/경북 거주자(50.3%)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구분	사례수	공감한다	공감하지 않는다	모름/무응답
전체	(1,003)	41.8	48.9	9.3
연령	18세-29세	(170) 40.8	42.6	16.7
	30대	(150) 32.5	58.9	8.6
	40대	(186) 32.0	63.8	4.2
	50대	(195) 44.2	51.2	4.6
	60대	(166) 55.4	36.8	7.8
	70세 이상	(136) 46.5	37.1	16.5
지역	서울	(189) 46.8	43.9	9.3
	인천/경기	(318) 41.0	51.9	7.2
	대전/충청(세종)	(108) 34.8	53.2	12.0
	광주/전라	(99) 22.4	69.5	8.1
	대구/경북	(97) 50.3	36.6	13.1
	부산/울산/경남	(151) 46.8	42.3	10.9
직업	강원/제주	(41) 50.8	41.9	7.3
	농/임/어/축산	(28) 49.2	44.3	6.5
	자영업	(188) 44.0	51.4	4.6
	블루칼라	(163) 32.4	62.2	5.4
	화이트칼라	(261) 40.9	53.4	5.8
	주부	(175) 46.5	38.1	15.4
이념성향	학생	(85) 37.0	44.1	18.9
	무직/기타	(102) 48.6	35.6	15.8
	보수	(290) 65.8	29.7	4.4
	중도	(387) 39.7	51.6	8.7
이념성향	진보	(243) 23.1	70.0	6.9
	모름/무응답	(83) 22.0	41.8	3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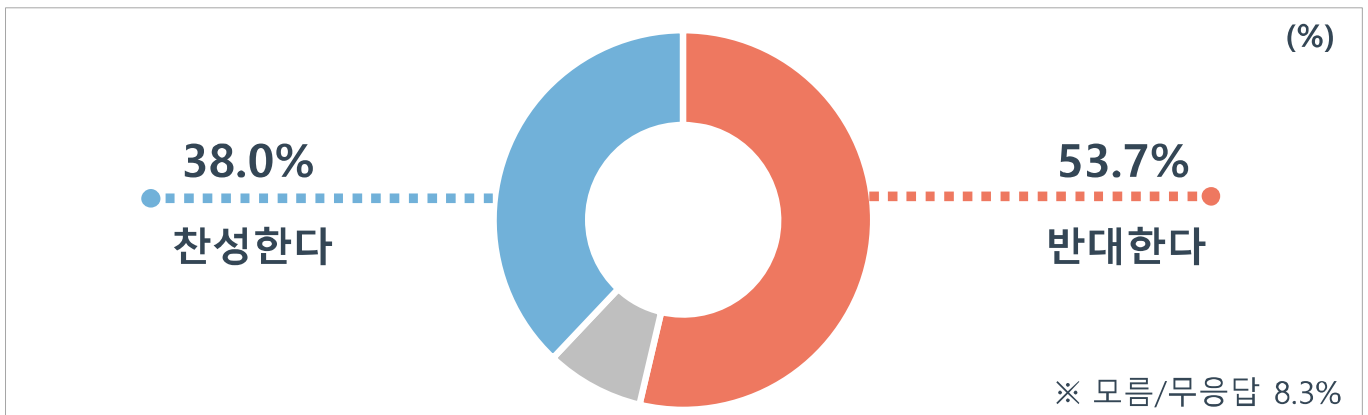
II. 정치현안 관련

9. 윤석열 당선인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찬반

-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가 53.7%로, '찬성한다' 38.0%보다 높음.

✓ '반대한다'는 18~29세(60.4%)와 30대(67.2%), 40대(72.4%), 인천/경기(61.3%) 및 광주/전라(71.0%) 거주자, 화이트칼라(67.8%)에서 높음.

✓ '찬성한다'는 60대(56.2%)와 70세 이상(60.0%), 대구/경북 거주자(50.3%), 주부(48.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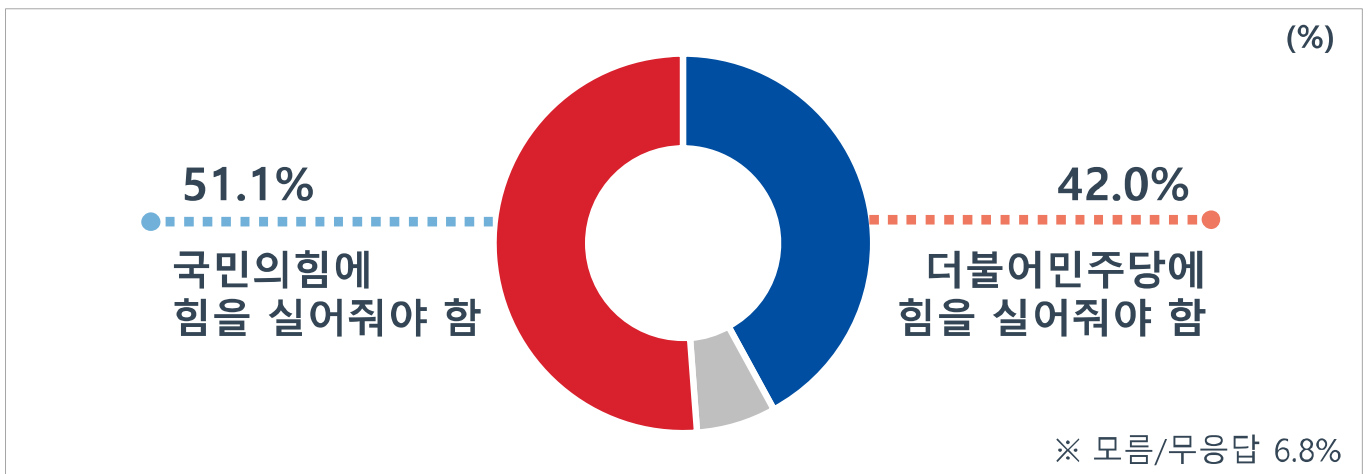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찬성한다	반대한다	모름/무응답
전체	(1,003)	38.0	53.7	8.3
연령	18세-29세	(170) 29.5	60.4	10.2
	30대	(150) 27.5	67.2	5.3
	40대	(186) 22.4	72.4	5.2
	50대	(195) 37.5	54.3	8.2
	60대	(166) 56.2	35.1	8.7
	70세 이상	(136) 60.0	26.7	13.3
지역	서울	(189) 41.7	47.5	10.8
	인천/경기	(318) 34.3	61.3	4.4
	대전/충청(세종)	(108) 39.5	53.1	7.4
	광주/전라	(99) 17.2	71.0	11.8
	대구/경북	(97) 50.3	36.4	13.2
	부산/울산/경남	(151) 43.4	48.3	8.3
직업	강원/제주	(41) 46.7	43.5	9.8
	농/임/어/축산	(28) 66.2	24.9	8.9
	자영업	(188) 42.3	51.9	5.7
	블루칼라	(163) 36.7	56.6	6.7
	화이트칼라	(261) 26.5	67.8	5.7
	주부	(175) 48.1	40.2	11.7
이념성향	학생	(85) 25.0	57.6	17.4
	무직/기타	(102) 47.1	44.2	8.7
	보수	(290) 60.9	33.4	5.7
	중도	(387) 34.3	59.0	6.7
진보	(243) 20.9	74.3	4.8	
모름/무응답	(83) 25.1	39.7	35.3	

II. 정치현안 관련

10. 지방선거 인식

-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가 51.1%로, '새로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42.0%보다 높음.

- ✓ '안정적 국정운영'은 60대(67.6%)와 70세 이상(69.2%), 서울(57.6%), 대구/경북(68.4%) 및 부산/울산/경남(61.0%) 거주자, 주부(65.3%)에서 높음.
- ✓ '새로운 정부 견제'는 40대(61.5%), 광주/전라 거주자(76.8%), 화이트칼라(50.8%)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II. 정치현안 관련

10. 지방선거 인식

구분		사례수	새로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새로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모름/무응답
전체		(1,003)	51.1	42.0	6.8
연령	18세-29세	(170)	46.1	45.0	8.9
	30대	(150)	45.7	45.0	9.3
	40대	(186)	31.6	61.5	6.9
	50대	(195)	51.8	41.7	6.5
	60대	(166)	67.6	27.7	4.7
	70세 이상	(136)	69.2	26.5	4.3
지역	서울	(189)	57.6	38.5	3.9
	인천/경기	(318)	49.8	42.0	8.2
	대전/충청(세종)	(108)	48.3	44.3	7.4
	광주/전라	(99)	14.1	76.8	9.1
	대구/경북	(97)	68.4	26.5	5.2
	부산/울산/경남	(151)	61.0	33.2	5.8
	강원/제주	(41)	52.0	38.2	9.8
직업	농/임/어/축산	(28)	69.7	26.7	3.6
	자영업	(188)	48.8	44.4	6.8
	블루칼라	(163)	49.0	43.6	7.4
	화이트칼라	(261)	43.1	50.8	6.1
	주부	(175)	65.3	29.1	5.6
	학생	(85)	49.7	39.8	10.4
	무직/기타	(102)	51.1	41.1	7.8
이념향	보수	(290)	81.7	15.9	2.4
	중도	(387)	45.7	46.2	8.1
	진보	(243)	23.5	71.6	5.0
	모름/무응답	(83)	51.0	27.7	21.3